

사찰 납골시설 '호응'

1년새 10여곳 늘어 총 32곳 "시설 설치 행정 간소화 시급"

문중(門中) 납골묘가 확산되는 등 납골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찰 납골시설이 불자와 일반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공설 납골시설 이용 증가에 따른 사찰 납골당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납골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10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찰 납골시설은 모두 32곳으로, 지난해 초 20여 곳에 비해 1년 새 10여 곳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용규모 측면에서 예년의 2-3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음성 한마음광명선원의 영탑은 지난해에만 150여기가 들어서는 등 폭발할만한 신장세를 보였다. 특히 광명선원은 인도와 불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경기 양평 갈월사 납골당도 지난해에만 150여기가 늘어났으며, 한마음선원 진주지원도 매년 40-50기가 들어서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대전 구암사는 작년보다 분량을 시작했음에도 벌써 300여기를 수용할 정도로 수요가 늘고 있으며, 경북 영천 만불사 역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립 납골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경기지역의 일부 납골시설들은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90년과 95년에 각각 납골당 운영에 들어

갔던 연천 월성사와 오봉사는 오히려 지난해부터 찾은 이가 다소 줄었으며, 파주 삼락원과 고양 장안사 납골당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시립 납골당들이 시설을 개선하고, 또 용미리 제3납골당이 들어서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데다, 1기당 1만5천원에 지나지 않는 시립 납골시설과 비교해 최소한 1백만원이나 하는 사찰 납골시설이 가격 경쟁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안사 사무국장 황동렬씨는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값이 저렴한 시립납골당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올해에만도 2곳의 납골당을 건립하는 등 공립 시설이 계속 늘 것으로 보인다"며 "사찰 납골시설들은 서둘러 시설 개선 및 홍보 확장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사찰 납골시설들의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현재 경기 양평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 중인 보문정사 주지 해공스님은 정부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소송과 재판도 몇 차례 벌였다. 해공스님은 "환경영향평가, 도로법, 수질오염문제 등으로 17번이나 제출서류를 반려 받았지만 결국 지난해 소송에서 이겨 현재 공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 천불사는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2년 반이나 걸렸다.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법이 일반

● 불교계 납골시설 현황 ●

운영 사찰	종류	연락처
한마음광명선원	영탑	043-877-5000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영탑	055-744-1321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영탑	064-721-4662
한마음선원 제주부림지원	영탑	055-345-9900
음성 미타사	영탑	043-872-0522
음성 교심사	영탑	043-878-5408
서울 능인선원	납골당	02-577-5800
시흥 영각사	납골당	031-478-7700
부천 석왕사	납골당	031-655-1044
파주 삼락원	납골당	031-941-3416
고양 장안사	납골당	031-901-1954
고양 경운사	납골당	031-963-9254
고양 극락사	납골당	031-963-2678
연천 오봉사	납골당	031-834-2140
양평 보현원	납골당	031-774-5940
파주 악수암	납골당	031-952-4801
대전 구암사	납골당	042-822-2377
음성 홍총사	납골당	043-877-0743
의령 용곡사	납골당	055-572-3233
밀양 무문사	납골당	055-353-8033
정선 백암사	납골당	061-392-7502
인천 천지정사	납골당	022-933-1988
연천 월성사	납골당	02-739-4641
양평 갈월사	납골당	031-774-7374
양평 벽계사	납골당	031-771-7704
양주 신평사	납골당	031-871-0101
양산 천제사	납골당	055-382-5515
가평 선학향수도원	납골당	031-584-0657
포천 다보정사	납골당·납골당	031-531-0560
의령 오봉정사	납골당·납골당	031-452-4814
영천 만불사	납골당·납골당	054-335-0101
양산 천불사	납골당·납골당	055-382-1463

과는 달리 사찰에 엄하게 적용돼 자격요건을 갖추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사찰의 관계자는 "납골시설 수요가 늘고 있는 마당에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시설건립을 어렵게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관련 법규정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a.com

현대불교 '새 기획' 지면이 바뀝니다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니다' 6면

꼭 돈이 많아, 여유가 있어야 나눔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악화로 주위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 뿐 아니라 시간이나 봉사로도 자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심심할만 마음과 불질을 나눈다면 우리 사회는 한층 밝고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 가 아니라 나부터 해봅시다. 도움을 받아야 할 곳, 후원하는 단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현대불교가 연결시켜 드립니다.

우리 절 우리 신도 6면

지역에서 활발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펴는 절을 한번 들여다 보면 '내집처럼' 절을 돌보며 헌신적이고 신심이 강한 불자들이 꼭 있습니다.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는 우리 절 신도'를 동행하며, 그들의 삶과 신앙을 조명합니다. 주지 스님이나 신도회장 등의 '후천의 말'도 곁들입니다.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7면

최근 '제3 수행법'이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실제 체험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다양한 수행법을 통해 깨달음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불자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불자들의 관심을 끄는 다양한 수행법들의 취미를 살피고 그 수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실제 체험을 한 전문가와 본지 기자들의 생생한 수행체험기를 소개해 불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행 365일... 이제는 실천이다 7면

이론으로 아무리 해박하더라도 한번 실천하면 못합니다. 진정한 불자가 거듭 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하나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1년 12달을 각각 '발심'의 달, '하심'의 달' 등 주제를 잡아 한주 한주 실천할 수 있도록 실천덕목을 제시하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의 현장을 소개합니다.

불자의 생각-네티즌 여론조사 1·9면

불교계 핫 이슈나 쟁점 사항에 대해 불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미니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매주 공개합니다. 참가자들은 우첨채 선물도 증정합니다.

해외불교 10면

교통과 정보의 눈부신 발전으로 이제 세계는 하나의 마을과 같습니다. 한국에 불교를 전해준 중국과 인도 등 대륙에서 불교가 새롭게 도약의 기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동심원과 현지거주 불자들을 통해 지구촌 불교동향을 신속하게 보도합니다. 또 해외신간들과 해외 불교지도자의 풍정도 소개합니다.

여성, 생활 19면

불교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불자들, 주부불자들의 관심사항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자녀 불자만들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정법회를 병행하는 가장 방법, 여성불자들의 활약상 등도 알려드리는 우마이담 전용입니다.

건강, 레저 20면

고령화사회를 맞아 한층 건강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행은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건강식사와 생활 건강정보, 다이어트법 등을 소개합니다. 또 주5일 근무제가 다가올수록 한층 늘어날 여가에 가족과 함께 도반과 함께 가볼만한 여행지와 기도처도 알려드리고 여행사가 추천하는 여행상품도 소개합니다.

네티즌, 청소년 21면

절에는 할머니 어머니를 만난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유명한 탤런트, 가수, 영화 배우, 축구선수, 농구선수, 골퍼, 종교대학생들도 즐겨 절에 다니며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이례서 불교가 참 좋다. 또 네티즌들의 동아리도 순례하고, 암 등 난병의 근원으로 알려진 단배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금연방법도 소개합니다.

장지현의 '잊혀진 가람 탐방' 24면(격주)

1600년 불교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는 현존하는 유명한 절만 아니라 2000여 곳의 폐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잊혀지고 방치됐지만 차츰 폐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금강산 신계사부터 제주와 제주까지, 장지현 시인의 유려한 필치를 따라 폐사지 역사 탐방을 떠나봅시다.

그 절에 가면 24면(격주)

한국의 사찰에는 일본이나 중국, 태베트의 사찰과는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과 맛, 법향이 감동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과 국보급 문화재들의 아름다움에 더해 그 사찰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맛과 멋을 깨내어 굳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독자 여러분을 법향속에 담담 잠겨들게 할 것입니다. 사진가 박보하씨의 생생한 사진이 더욱 눈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조계종 중정 추대 어떻게 2월 18일 이후 논의될 듯

조계종 10대 중정 해암 스님의 열반과 함께 차기 중정추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기 중정스님 추대는 의는 고단 관례상 49재(2월 17일)가 끝난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정 제6장 '중정' 19-25조에 의하면 중정추대회의는 중정의 임기만료 3개월 전이나 유고시에 원로회의 의장이 소집하여, 원로회의 의원스님(19명)들과 총무원장, 중회회장, 호계원장이 추대하도록 규정돼 있다.

중정에는 재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중정을 추대하도록 돼 있지만 표결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 22명으로 구성된 추대회의에서 후보를 사전 조율하여 만장일치로 추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정스님의 자격으로 '행해(行解)가 원만한 비구로 승랍 45년 이상, 연령 65세 이상, 법계대종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선

승랍 45년·연령 65세이상 대종사 '자격'

백양사 서용 스님, 성문사 청화 스님, 용화사 송담 스님은 수좌들로부터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선승으로 꼽힌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인 법전 스님은 조계종의 풍조를 확립한 불암사 결사에 참여했고, 성철·해암 스님으로 이어지는 해인사의 법통을 이었다.

법통 스님은 오랜 동안 산사에서 수행에만 전념해왔고, 회계사 송산 스님은 경허 만공 스님의 법맥을 잇고 해외에서도 높은 추앙을 받고 있는 원로이다.

지자사 관음 스님은 무문관 수행을 한 대강백이며, 송광사 보성 스님은 대표적 율사 스님이다.

황대선원 성수 스님은 성적이 원만하다는

점, 파계사 고승 스님은 산중에만 살면서 수행해온 원로종의 원로이다.

수덕사 원담 스님 역시 선승으로 수행력이 높으며, 칠보사 석주 스님은 포교에 헌신하면서 불자들의 곁에 가까이 있었다는 점이 돋보인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해암 중정스님의 49재가 끝난 이후에나 원로회의가 소집돼 추대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현 집행부의 출범 후 종단이 평온을 되찾은 상황이기에 때문에 차기 중정 추대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kwim@buddhapa.com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등 원할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2002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불교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통	· 30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4년	■통신80명	· 주민등록등본 1통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 반명함판 사진 5매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 학교연혁
1989.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장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보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제9회 졸업생 배출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예정)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석사·박사 약간명 모집

학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 대학 졸업사(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 유학생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 여권용사진 3매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1월 25일 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4.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주소: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화: 25-6798167 팩스: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02-511-2026-8 팩스: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교육부 학력인정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문의처
02)511-1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